

‘일행일구’ 라도 실천하세요

깨달음과 멀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시집인연에 의해 발원할 때는 손을 끊거나 태워도 아프지 않지만, 그게 항상 수행의 바른 법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쾌락과 고행의 양 극단을 버린 중도의 길을 택해 깨달으셨듯이) 과각(脛角: 소의 뿔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뉘어 유별나게 고집 부리는 것) 하지 않고 심성이 곧고 반듯한 게正道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일상속에서 인간미를 느끼게 한 자비로운 스승에 대한 동명 스님의 회고담은 40여년 전의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만큼 생생했다. 한 마디 한 마디가 스승에 대한 사모의 정이 우러나는 표현들이어서,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제지간의 애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비록 삭막해지긴 했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와 ‘지금 여기’의 수행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예로부터 먹고 살기 힘들지 않은 시절이 없었지만, 수행자의 근기가 얇은 요즘 신도들이 바른 일상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요.”

“초보자는 일할 때는 화두 놓고 일에만 몰두해야 해요. 일하거나 운전할 때는 그 대상과 하나가 되면 됩니다. 이것 저것 많이 배우기 보다 일행일구(一行一句)라도 제대로 알아서 소화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할 때는 일과 하나 되어 정성껏 일하고, 집에 와서 좌선할 때는 모든 망상을 쉬고 화두만 챙겨야 합니다. 화두공부는 한가하게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공부죠. 험한 세상살이가 까딱하면 바깥대상만 쫓아다니는 독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상(我相)을 허무는 계기로 삼아 발심만 잘 하면 훌륭한 공부도량이 될 수 있습니다.”

“해인 선사께서는 일주일만에 깨달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요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 일까요?”

“에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정진을 오래 해야만 깨치는 것으로 알지만, 견성(見性)은 단시일에 결정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은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도 7일이면 도를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7일만에 깨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수행자의 정신자세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수행자는 ‘크게 한번 죽는(大死一番)’ 용맹심으로 오직 화두 일념에 사로잡혀 옆에서 뇌성벽림이 쳐도 듣지 못해야 하



고, 찬 바람이 뼈 속으로 스며들어도 추운 것을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죽기로써 대든다면 7일만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 생사의 일대사를 결정짓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산문 밖이나 안이나 경제난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다보니, 수행자들도 탐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행과 생활이 조화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수행이란 마음 씀씀이를 좋은 쪽으로 바꾸는 일이고 자기 업을 전환하는 행위라 볼 수 있죠. 긍정적인 생각, 올바른 행동이 삶속에서 우러나 오지 않으면 수행한다고 할 수 없어요. 공부가 잘 된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 맑은 일도

잘 하고, 인격도 훌륭하죠. 그 사람의 언행(言行)을 보면 탐진치가 어느 정도 조복이 됐는지, 공부 정도를 가늠할 수 있어요. 부처님은 지극히 인간적인 분이셨고 완전한 인격자였듯이, 우리들 역시 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반듯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마을에서도 신뢰를 잃거나 고통 받지 않고 잘 사는 법입니다.”

“<유마경>에 ‘직심이 도량(直心是道場)’이란 법문이 있는데, ‘반듯하게 산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순수하고 곧은 마음, 일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그렇지요. 부처님께서도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말할 게 없죠. 자신의 수행을 되돌아보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불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계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함과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이 피려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씨도 뿌리지 않고 꽃을 피우려고 해요. 부지런히 정진해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꽃이 활짝 필 때가 있음을 믿고 한결같이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동명 스님은 안거 횟수가 계급장처럼 여겨지는 수행 풍토와 훌륭한 선지식의 지도감독이 없는 선방의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도 말을 아꼈다. 일평생 선방에서 정진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대중과 호흡하며 그들을 불법의 대대로 인도하는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 무심도인(無心道人)이 존경받는 것도 미덕이지만, 시대가 요구할 때

는 시장중에서 대중과 울고 웃을 수 있는 보살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다.

법문을 청하는 곳이 있으면 마다 하지 않고 설법 후 보시금도 사양하는 동명 스님. 언제나 동자승 같은 천진한 미소로 재가불자들을 자상하게 맞는 스님을 보면, 해인 선사가 전승선림을 스님에게 맡긴 이유를 알 것만 같다.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이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요즘, 진흙속에서 연꽃은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도심속에서 깨달음의 숲이 더욱 푸르고 무성해지기를 발원하며 선원의 불이 문(不二門)을 나섰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o@hanmail.net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51. 진각종 회당 대종사

진각종 회당 손규상(梅堂 孫圭祥, 1902~1963) 대종사는 율종도 사람이다. 1962년 대구 심인당에 들르니 20여 명의 종도들과 함께 육자명호(六字名號, 옴마니반메훤)를 외우고 있었다. 신라 선덕여왕 때 명량 법사가 창조한 신인종(神印宗)을 연원으로 하고 있으나, 육자진언을 외우는 것이 특징이었다.

인물이 훗날에 잘 생긴 어른이 하이칼라에 두루마기를 입고 정진하시는데, 단에는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 관세음보살의 광대 원만한 자비심을 소리로 형상화한 진언) ‘옴 마니 반메 훤’을 본 존불로 모시고 있었다. 처음 보는 일이라 조금은 서먹서먹하여 쳐다보고 있으니 정진하던 사람이 옆으로 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우리 종조님께서 1946년

성불(即身成佛)로 현세정화를 목적으로 하여 삼밀가지(三密加持: 부처와 중생의 신체와 언어와 마음이 서로 합치되는 것)를 하고 있네. 아직은 힘이 없지만 장차 후배들을 양성하면 어두운 세계에 밝은 빛이 될 거야.”

호기심으로 들었던 심인당에서 한국불교 18개 종단의 하나인 불교 진각종의 총본산을 참배하게 되어 큰 의의를 가지게 됐다. 그런데 이듬해 침산동 불승 심인



람을 피우는 사람은 정사가 될 수 없는데, 혹여쩌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대중 참회를 통해 용서를 받아야만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막행막식으로 무애행을 하여 역행보살의 행을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기성종교의 종단보다는 도덕적 생활과 수도정진의 수행이 타의 모범이 필요해서 이 종단이 기성종단에 비해 빨리 성장할 것을 예측하였다.

나는 7~8년 동안 진각대학에서 <법화경>과 <금강경>을 강의하면서 학인들의 철저한 공부정신과 심인불교를 복지중심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재가불교 종단으로서 뿐 아니라 시대불교에 걸맞는 불교라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세상이 온통 술, 담배, 외도로 인해 이미 혼탁해져 있고 개인의 건강과 가정의 파탄이 눈앞에 전개되어 있는데, 그 가정을

신라 신인종서 연원한 진각종 창종... 육자대명왕 진언 수행

병이 나서 이쪽 성서면 농림촌에 도량을 개설하고 10년동안 정진하여 병이 나으시므로 진언의 묘리를 터득하고 포교일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신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월초 불공 때는 전국에서 천여 명이 모입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모입니까?”

“아닙니다. 진리탐구를 위해서 오시지요. 그러나 더러는 병이 들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를 마시고 있는 사이에 불공의식이 끝나 천히 우리들이 있는 자리로 오셨다.

“어디에서 왔는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학생들이 팔공산 성지순례를 왔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교주로 모시고, 중생들의 불심을 심인(心印)으로 믿으며, 즉신

당에서 62세로 입적하신 손 종조의 뜻을 받들어 1966년 재단법인 대한불교진각종 유지재단으로 변경, 1973년부터 진각종보를 발간하고 회당장학회를 설립, 심인종고등학교와 진선여자종고등학교를 세워 인재를 기르면서 기도원과 수도원, 진각대학을 설립했다. 여기에 소속된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원, 탁아소를 만들어 각 구 단위로 운영하니 오히려 기성 불교종단보다도 힘이 있고 단합된 종단을 운영하게 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진각종 교육원장께서 불교통신대학 대학원에 입학하여 성실하게 공부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었고, 또 교단의 정사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대중 앞에 공개하여 박수 갈채를 받았다.

“우리 종단에서는 이성에 대해 갈등을 가진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부부가 함께 정진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바

바로 잡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것은 부처님의 출가 정신과 예수의 희생정신에 걸맞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비록 재가 불교운동에 국한하고 있다고 하지만 출가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래의 성불불교임을 느끼게 하고 있었다.

다른 밀교종단처럼 <대일경> <금강장경> <대승장엄보장경> <대승이취육바라밀경>을 따로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 정사들의 신심과 원력을 보면 진실로 시대에 걸맞는 종교임을 인식케 한다. 회당 정사 이후 법신, 각해 등 7·8대 총인이 바뀌고 회정, 원명, 수성, 혜정 등 수많은 인제가 걸려도 그 속에는 아직 부정파가 없고, 상하 질서가 잘 유지되어 회당 정사의 유지가 부처님의 유언처럼 잘 실천되고 있다. 특히 현대교육사업과 보육복지 사업은 모든 종단들이 본받아야 할 포교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향·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이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담보내용

구분	화재	화재	상해
기본 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 담보	구내폭발손해 중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심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3호
011-648-1203 | 010-7344-1881

서일석(圓明) 합장

유기농 보이차(ORGANIC PUER TEA) 유기농 보이차의 보급화 선언!

현불샵(hyunbulshop.com) 입점 기념 15%할인 판매
250,000원 ⇨ 15% DC 특별 할인가 212,500원

이주 특별한선물 유기농 보이차선물세트 (유기농보이차 속차 357g + 대나무보관통 + 보이차 다기세트 7종)

1등급 100% 유기농 보이차만을 엄선하여 준비했으며 보이차 전문 다기세트는 드리는 분의 정성과 선물의 격을 한층 더 높여 드립니다.

- 제 6기 중국보이차 “보이차왕” 수여
- 미국 FDA, 유기농인증 획득한 USDA
- 일본 유기농인증기관인 JAS

중국 보이차 기업 중 최대규모인 670만평 이상의 보이차 생산단지과 100%유기농법으로 생산하여 그 품질과 맛이 가장 뛰어난 (주)고진 유기농 보이차! 후 발효차인 보이차의 깊은 맛과 오묘한 향의 끝맛을 그대로 발효시켜 황제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유기농 보이차입니다.

중국에서도 유기농회사로서 처음으로 생산 공정과 가공공정 발표공정에 특허를 받아 용성산의 독특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발효시켜서 만든 유기농보이차입니다. 중국황제가 마시던 보이차는 오래 묵을수록 귀한 고가의 차며, 미생물에 의한 발효를 거치는 후 발효 차이며 오래 묵히면 묵할수록 고가의 차가 됩니다. 방습통풍이 잘되는 적절한 온도하에서 보이차는 독특한 맛과 향, 약효를 가지게 됩니다.

유기농 보이차는 상류층이 주로 애용하는 고가의 차이며 국가주식 후진타오 보이차를 즐겨 마시는 보이차 애호가입니다.

중국의 주식 후진타오가 용성유기농 보이차를 접하고 나서 유난히 맛과 품질이 뛰어난다는 점을 알게 된 후, 현재 후진타오 국가주식이 용성 보이차만을 애용하고 있고 최고의 품질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국제적으로 홍보를 대신해 주고 있으며 유명인사 방문 시 용성의 보이차를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 유기농 보이차 속차

- 제품명 : 유기농보이차 속차 · 식품유형 : 침출차 · 내용량 : 357g
- 제조회사 : Yunnan Longsheng Green Industry (group) LTD
- 원재료명 : 보이차 100% · 원산지 : 중국 운남성 · 수입판매 : (주)고진 · 포장재질 : 종이제
- 제조일자 : 2007년 03월 01일 (제조일자는 2007년이지만 2006년에 수확한 차잎을 사용해 제조하였습니다)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0년 (보이차는 오래되면 오히려수록 가치가 높아지기때문에 적정한 장소에서 보관만 잘 하시면 훌륭한 보이차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 불교온라인쇼핑몰 현불샵(hyunbulshop.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문의 : (주)고진 031)437-1570, 1580
· 주문전화 : 02)2004-8215~6